* 성장과정(학교생활) ※ 각 항목당 한글 6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 사이트 보안을 위해 기호, 특수문자 등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 ; , /\* , \*/ , @@ , @ , ‘

(600자)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저는 일찍이 적성을 발견하고, 적성과 흥미를 역량으로 길러왔습니다. 어릴 적,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18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과 도시를 오가며 변화가 잦다 보니, 몰두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해 로봇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전국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한국대표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Technology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과 제어라는 적성을 찾았고,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심화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S/W 동아리에 입부하고 ICT 개방형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한이음`에 참가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챗봇 제작,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 모터, 3D 프린트기를 활용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공과목 외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저는 제가 발견한 적성을 믿고, 꾸준히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매그나칩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가치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성격의 장단점

(600자)

[소통과 변화에 적응하는 힘]

국제 로봇 컨테스트 선물배달 종목 팀장을 맡으며 기술적인 부분보다 의견수렴과 소통문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동에서 어려웠던 부분과 개인 의견을 제때 피드백 받았고 다음 역할분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은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통해 서로 보완하며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엔지니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통해 기른 소통능력과 협동력은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잦은 이사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소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스스로 스트레스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만큼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단체활동에서 개개인의 역량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동기 및 향후 포부

(600자)

[초심을 잃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

입사 초, 대학에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도전했던 알고리즘 문제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초업무능력을 빠르게 습득하여 기본이 탄탄한 인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팀 내의 모범이 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학부 시절 멘토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상사에게는 듬직한 직원이 될 것이며, 후임에게는 든든한 멘토가 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생산 가동률을 위한 테스트를 이끄는 전문 PM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라는 초심을 기억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전자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IOT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반도체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업무환경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매그나칩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력기술서] 특기사항 - 산학장학생 지원자 : 소속(예정) 연구실명을 기재하고, 해당 연구실에서의 향후 수학 계획을 상세히 기술(글자수 제한 없음) - 일반 신입지원자 : 연구실, 학과수업, 동아리 활동 등에서의 연구과제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술(글자수 제한 없음)

[한이음 프로젝트(챗봇 제작)]

학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학년생의 멘토로서 학교적응을 돕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학생 대부분이 학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원하는 교내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 형 대화 메신저` 개발 중에 있습니다.

AWS의 EC2 컴퓨팅을 통해 Ubuntu OS 서버 개설 후 python을 이용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까지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이음 프로젝트(드론 제작)]

드론의 기술 발전과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드론제작, 제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아두이노를 이용한 드론 제작과 제어`라는 주제로 한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Arduino와 Multiwii 소스를 사용하여 드론의 성공적인 제작과 비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자재 선정을 잘못하거나 코드 에러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번 추락하고 파손도 되었습니다. 드론 부품비를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곤란한 가운데, 어릴 때의 로봇제작 경험을 살려 파손된 드론을 고쳐가며 시험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PID 제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팀원들과 각종 논문과 전공서적을 정리하며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시소테스트, 호버링 등에 몰두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탐구와 끈기로 안전한 드론의 비행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S/W 동아리 활동]

대학 입학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제작, 제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내 S/W, H/W 동아리 E.O.N에 입부하였습니다.

C언어, python 등 개발언어에 공통적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스터디와 세미나를 진행해 왔으며, 개발언어 외 Arduino, Multisim, Matlab 등 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도 숙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젝트 진행 및 공모전에 참가하며 심화학습을 할 수 있었고, 전공 지식 외 다양한 개발 역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6시그마 Green-Belt 교육]

KPC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6시그마 GB 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석기법과 불량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Minitab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기획, PPT로 시각화하는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